

2020년 2월 2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개별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상승 반도체, 태양광, 연료 전지 업종 급등 Vs. 경기 방어주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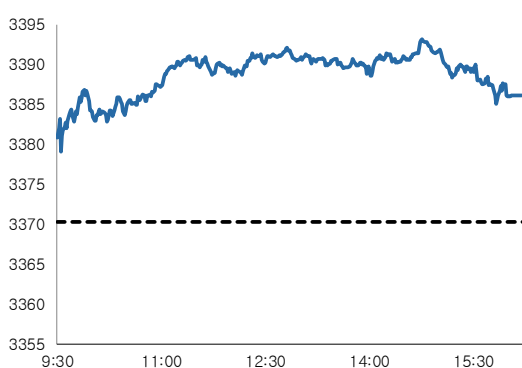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요인: 업종별 차별화 지속

미 증시는 양호한 실적 등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반도체 업종이 급등한 가운데 견고한 경제지표 결과에 힘입어 상승.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과 수요가 훼손 될 수 있으나,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 한편, 미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사했으나 영향력은 제한(다우 +0.40%, 나스닥 +0.87%, S&P500 +0.47%, 러셀 2000 +0.54%)

미 증시는 업종별 차별화가 지속. 반도체 업종은 아나로그디바이스(+4.49%)가 예상보다 강한 실적과 배당금 증액 발표에 힘입어 상승. 특히 반도체 업계의 전 세계 매출이 감소했던 2019 년을 뒤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안정화, 수익 개선 조짐이 보인다는 전망이 유입된 점이 긍정적. 이런 가운데 NVIDIA(+6.11%)에 대해 번스타인이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점도 반도체 업종 상승을 이끔. 이러한 실적 호전과 개별 기업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1% 급등하는 모습을 보임. 여기에 태양광 업체인 엔페이즈에너지(+42.44%)가 큰 폭으로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자 관련 기업들이 급등. 더불어 일부 투자회사가 테슬라(+6.88%)에 대해 청정 에너지 관련 주식에 더 많이 매수세가 유입 될 것이라며 목표주가 상향 조정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및 연료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점도 영향.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 되었는데 주식시장은 상승폭이 소폭 확대. 연준은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코로나 19 가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미-중 무역합의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 더불어 일부 자산의 경우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언급. 그런 가운데 금융안정에 위험이 있다면 통화정책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코로나 이슈가 확대된다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실제 이날 의결권이 있는 비둘기 성향의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금리 변경을 예상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변화는 금리인하” 라고 언급. 이는 미 연준이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향후 Risk Factor 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주요 동향	종가	D-1
KOSPI	2,210.34	+0.07	홍콩항쟁	27,655.81	+0.46
KOSDAQ	684.78	+0.27	영국	7,457.02	+1.02
DOW	29,348.03	+0.40	독일	13,789.00	+0.79
NASDAQ	9,817.18	+0.87	프랑스	6,111.24	+0.90
S&P 500	3,386.15	+0.47	스페인	10,083.60	+0.78
상하이종합	2,975.40	-0.32	그리스	916.80	+0.55
일본	23,400.70	+0.89	이탈리아	25,477.55	+1.0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1%

아마로그디바이스(+4.49%)는 견고한 실적과 배당금을 15% 증액한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경쟁사인 TI(+1.44%), 마이크로칩테크(+2.67%)도 동반 상승했다. 더 나아가 업황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자 마이크론(+3.88%)을 비롯해 AMAT(+3.45%) 등 여타 반도체 업종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NVIDIA(+6.11%)는 번스타인이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1% 급등했다. 애플(+1.45%)은 코로나 19 여파로 부진한 매출을 경고했으나, 중국의 경기 부양정책 등에 대한 기대 심리로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다.

태양광 업체인 엔페이즈에너지(+42.44%)는 큰 폭으로 개선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솔라엣지(+17.94%)도 동반 상승했다. 테슬라(+6.88%)는 일부 투자회사가 향후 청정 에너지 관련 주식에 더 많이 수요가 밀릴 것이라며 목표주가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회사인 플러그파워(+17.94%), 연료 전지 회사인 푸엘셀 에너지(+13.41%) 등도 동반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96%	대형 가치주 ETF(IVE)	+0.30%
에너지섹터 ETF(OIH)	+1.63%	중형 가치주 ETF(IWS)	+0.07%
소매업체 ETF(XRT)	+0.22%	소형 가치주 ETF(IWN)	+0.41%
금융섹터 ETF(XLF)	+0.74%	대형 성장주 ETF(VUG)	+0.71%
기술섹터 ETF(XLK)	+1.19%	중형 성장주 ETF(IWP)	+0.5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6%	소형 성장주 ETF(IWO)	+0.67%
인터넷업체 ETF(FDN)	+0.15%	배당주 ETF(DVY)	+0.21%
리츠업체 ETF(XLRE)	-1.41%	신흥국 고배당 ETF(DEM)	+0.67%
주택건설업체 ETF(XHB)	+0.0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1%
바이오섹터 ETF(IBB)	+0.78%	미국 국채 ETF(IEF)	-0.02%
헬스케어 ETF(XLV)	+0.46%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0.06%	물가연동채 ETF(TIP)	-0.04%
반도체 ETF(SMH)	+2.57%	Long/short ETF(BTAL)	-0.5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11.79	+1.32%	+0.57%	-6.48%
소재	379.92	+0.20%	+0.17%	+0.01%
산업재	708.42	-0.05%	-0.46%	+0.61%
경기소비재	1,048.28	+0.47%	+1.12%	+4.41%
필수소비재	662.06	-0.08%	+0.30%	+0.49%
헬스케어	1,210.55	+0.45%	-0.19%	-0.63%
금융	515.37	+0.74%	-0.05%	+0.89%
IT	1,801.61	+1.09%	+2.00%	+5.71%
커뮤니케이션	192.97	+0.37%	+1.94%	+1.03%
유틸리티	355.20	-1.09%	+1.37%	+3.87%
부동산	255.78	-1.36%	+0.75%	+3.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경기 부양 정책 기대 유입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2% 하락 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도 0.73%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584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0.55pt 상승한 299.3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2.4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코로나 19 이슈가 부각되자 장중 하락하는 등 여타 국가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는 관련 우려가 공포심리를 자극해 내수 부진 가능성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코로나 이슈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별 이슈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를 보인 가운데 상승했다. 특히 한국 증시와 관련이 깊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1% 강세를 보였는데 일부 기업들의 실적과 업황 호전 지속 기대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한국 시각 오전 10 시 30 분에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LPR) 결정이 있는데 금리인하 기대가 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미 일정 부분 기 반영된 내용이라는 하지만 인민은행 발표 이외에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호적이다. 물론 전일 한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공포심리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강세가 예상되나 지수 전반에 걸친 상승 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지표 개선

1 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 상승해 지난달 발표치(mom +0.2%)는 물론 예상(mom +0.1%)를 상회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전월 대비 0.5% 상승해 예상(mom +0.2%)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1 월 미국 신규 주택 착공건수는 전월 대비 3.6% 감소한 156 만 7 천건을 기록했으나 시장 예상치인 11.7% 감소한 142 만 건을 크게 상회했다. 착공 허가건수도 9.2% 증가한 155 만 1 천건을 기록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모기지금리 하락과 견고한 고용시장 등에 의한 결과로 추정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등 & 엔화 달러 대비 큰 폭 약세

국제유가는 코로나 19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완화된 데 힘입어 2% 넘게 급등했다. 더 나아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 기대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더 나아가 리비아 트리폴리 항구가 공격을 받아 내전 확대 우려가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양호한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유로화에는 약세를 보였으나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엔화가 코로나 19 우려 완화가 확산 되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개연성이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달러 대비 1.4% 넘게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양호한 경제지표에 기반에 상승 출발 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코로나 19 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관망세가 짙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코로나 19 에 대한 우려 및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을 언급했으나 이 또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 결국 미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 마감에 그쳤다.

금은 씨티그룹이 1~2 년 내 2 천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소폭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휴장이 지속되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3.29	+2.38	+6.71	Dollar Index	99.585	+0.15	+0.54
브렌트유	59.12	+2.37	+5.97	EUR/USD	1.081	+0.17	-0.59
금	1,611.80	+0.51	+2.66	USD/JPY	111.32	+1.32	+1.12
은	18,311	+0.89	+4.06	GBP/USD	1.2921	-0.59	-0.30
알루미늄	1,720.00	0.00	-0.98	USD/CHF	0.9837	+0.05	+0.56
전기동	5,770.00	-0.05	+0.10	AUD/USD	0.6678	-0.12	-0.88
아연	2,128.00	-0.79	-0.93	USD/CAD	1.3225	-0.26	-0.19
옥수수	385.25	-0.58	+0.26	USD/BRL	4.3639	+0.04	+0.24
밀	562.50	-0.44	+3.40	USD/CNH	7.0127	+0.08	+0.55
대두	905.50	+0.36	+0.92	USD/KRW	1189.30	-0.02	+0.83
커피	109.00	+0.14	+6.29	USD/KRW NDF1M	1192.43	+0.17	+1.14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564	+0.34	-6.89	스페인	0.268	-1.70	-3.80
한국	1.555	0.00	-6.00	포르투갈	0.270	-1.30	-2.70
일본	-0.047	+1.30	-1.30	그리스	0.952	-1.30	-0.40
독일	-0.418	-1.10	-4.00	이탈리아	0.951	+2.20	+3.90